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 제26호

Jeff Pippenger

2026-01-12

26번

요엘의 네 세대는 1863년부터 주일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포도원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나타낸다. 숫자 4는 또한 그리스도의 품성의 네 가지 속성을 상징한다. 성소의 그룹들은 네 가지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그 모습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성소를 둘러 진을 쳤을 때의 네 부분으로 나뉜 배치와 일치한다. 그 모습들은 또한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그들의 얼굴 모양에 관해서는, 그 넷은 오른쪽에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한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다. 에스겔 1:10.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요한계시록 4:7.

성경(민수기 2장)은 열두 지파가(성막을 바로 둘러 진을 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각 세 지파씩 네 진으로 편성되어 성막 주변의 동서남북 네 방향에 자리하고, 각 진이 자기의 기(깃발·군기) 아래에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러한 배치는 그룹들이 지키는 하늘의 보좌를 지상의 진영이 거울처럼 비추는 상징적 대응을 형성했다.

유다는 성소의 입구,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진을 쳤다. 유다의 깃발은 사자였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를 상징한다. 유다와 함께한 두 지파는 잇사갈과 스불론이었다. 요한의 환상에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에스겔의 그룹들은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을 상징하는 르우벤은 남쪽에 시므온과 갓과 함께 있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있었고, 베냐민과 므낫세와 함께 소로 상징되었다. 북쪽에는 단이 아셀과 납달리와 함께 있었고, 독수리로 상징되었다. 지파들과 하늘 성소의 네 얼굴의 연관성은 네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

마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마가는 희생의 황소, 누가는 사람, 요한은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시고 그 봉인을 여시는 분으로 자신을 밝히신다. 마태복음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12개)이 다른 세 복음서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나타낸다. 의사였던 누가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자신의 복음서를 제시하는데, 누가는 사람의 얼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희생 제물의 관점에서 자신의 복음서를 제시하는데, 마가는 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한은 높이 나는 독수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드러냈다.

예언의 말씀 안에서 드러난 그대로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태복음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그의 예언의 말씀의 주재자이며, 비밀을 헤아리시는 놀라운 자, 언어에

능한 놀라운 자, 그의 말씀을 봉하고 또 봉인을 여는 자이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그는 말씀이다. 신약의 첫 책과 마지막 책은 예언서이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이 신약의 알파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약의 오메가와 일치해야 한다. 그것은 끝, 곧 요한계시록을 대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제시된 언약 역사의 평행한 흐름을 발견할 때, 그것은 마태 지파의 사자가 봉인을 여는 진리 그 자체이다.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언약 역사의 열두 장이 이제 봉인에서 풀리고 있으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는 마태복음 23장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분리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전 언약 백성에게 선포된 여덟 가지 화는,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144,000을 대표하는 여덟 영혼과 예언적으로 상응한다. 23장은 2300일이 1844년 10월 22일 그 결말에 이르렀을 때 하늘 성소에서 시작된 그 사역을 표상하며, 그 사역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법 때 다시 반복될 것이다. 23장은 이 진리를 표시하고 있다.

24장은 그리스도께서 배도한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막 마치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성전을 떠나신 직후에 일어난다. 숫자 24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현대 이스라엘로의 전환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분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제시하실 때 서 계셨던 예언 역사상의 바로 그 지점이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적 메시지는 '줄 위에 줄' 방법론에 대한 신적 예시로서, 특히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곧 14만 4천의 역사를 다룬다. 24는 요한계시록 12장의 교회로 상징되는데, 그 교회는 의의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 위에 서 있다. 그녀의 머리에는 24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별이 있는데, 이는 그녀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현대 이스라엘의 열두 제자로 전환되는 역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24장에는 1798년부터 대실망에 이르기까지의 밀러주의자들의 역사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마태복음 25장이다.

숫자 25는 선하든 악하든 레위인들을 상징하며, 그만큼 중요하게도 지혜로운 레위인과 악한 레위인의 분리를 상징한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증인, 곧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숫자 25가 상징하는 분리 과정을 밝힌다. 물론, 열 처녀의 비유는 밀러파의 역사이자 14만 4천의 역사이다. 그 역사는 첫째 천사의 역사이며, 달란트의 비유는 둘째 천사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셋째 천사의 심판을 가리킨다.

제26장부터 제28장까지는 유월절에서 십자가 처형 이후의 복음 전파 명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를 뒤면 유월절이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질 것이다." 마태복음 26:1, 2.

26장에 있는 여러 이정표를 요약하면, 3-5절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이다. 이어 6-13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 14-16절에서는 유다가 은 삼십에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다음 17-25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신다. 26-29절에는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30절에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다. 36-46절에서는 예수께서 겻세마네에 계신다. 47-56절에는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이어 57-68절에는 예수께서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 서신다. 69절부터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서술된다. 이 장에는 말세에 반복될 열 가지 특정한 이정표가 들어 있다.

제27장에도 열 가지 뚜렷한 이정표가 있다. 예수가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다음 유다가 목매어 죽고, 그다음 예수가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그다음 바라바가 선택되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그다음 예수가 조롱당하고, 그다음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그다음 예수가 죽고, 그다음 예수가 장사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의 경비병이 증언한다.

제28장에는 세 가지 이정표만 있는데, 첫째는 부활, 그 다음은 산헤드린의 거짓말, 그리고 지상 대명령이다.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십자가의 스물세 가지 뚜렷한 이정표를 담은 세 장이다.

마태복음 26장 - 열 가지 이정표

1.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3-5절)
2. 베다니에서 옥합을 가진 여인이 한 기름 부음 (6-13절)
3. 유다는 은화 서른 개에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의한다 (14-16절)
4.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의 준비와 식사 (17-25절)
5. 성만찬의 제정 (26-29절)
6. 베드로의 부인 예고 (30-35절)
7. 겻세마네의 고뇌 (36-46절)
8. 예수의 배반과 체포 (47-56절)
9. 예수,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다 (57-68절)
10. 베드로의 세 번 부인 (69-75절)

마태복음 27장 - 열 가지 이정표

1.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다 (1-2절)
2. 가롯 유다의 뉘우침과 자살 (3-10절)
3. 빌라도 앞에 선 예수 - 공식적인 로마 재판(11-14절)
4. 예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함 (15-26절)
5.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다 (바라바의 석방에 포함됨)
6. 군인들의 조롱과 채찍질 (27-31절)
7. 십자가에 못박힘(32-44절)
8. 예수의 죽음(45-50절)
9. 초자연적 징조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한 장례 (51-61절)
10. 무덤에 경비병을 배치함 (62-66절)

마태복음 28장 - 세 가지 이정표

1. 부활과 빈 무덤 (1-10절)
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한 거짓말 (11-15절)
3. 지상 대명령(16-20절)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부터 지상 대명령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의 경험이 그의 지상 사역의 마침과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시작을 가리켰던 것처럼, 동일한 이정표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은혜의 시기의 종결과 최후의 승리에 다가갈 때 그들의 경험 속에서 반복된다.

제26장부터 제28장까지는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 동안 반복되는 서로 구별되는 23개의 이정표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유월절 역사를 나타낸다.

다니엘 8장 14절에 제시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신 것,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신 것은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신랑이 혼인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표상된다. 대쟁투, 427.

1844년 10월 22일에 2300일이 끝난 사건은 일요일 법령 때에 반복된다. 마태복음 마지막 세 장에 있는 스물세 개의 이정표는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키는 데 쓰이는 보배로운 피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인류를 위하여 하시는 중보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만큼이나 필수적이다.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신 후 하늘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그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곳이라.' 히브리서 6:20. 거기서 갈바리 십자가의 빛이 비친다. 거기서 우리는 구속의 신비를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이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성취되었다. 드러진 희생은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의 최대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이의 진실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러질 수 있다. 대쟁투, 489쪽.

마태복음 23장은 거짓 제사장직에 대한 정죄를 강조한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23장의 오메가이다. 거짓 레위인들, 즉 노인들의 반역이 네 세대에 걸쳐 격화되면서 마지막 세장에서 이정표들을 세웠다.

제24장은 한 줄 한 줄 더해 가는 방법론을 그리스도의 방법론으로 규정하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사용하여 현재의 것들, 과거의 것들, 그리고 장차 있을 것들을 묘사하시기 때문이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함락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음 파괴되었을 때와 같은 날짜에 일어났다.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는 이미 지나간 역사였고,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예표했다.

마태복음 24장은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을 부각시키며, 이로써 '방법론'을 예언적 증언의 한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24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그것이 윌리엄 밀러의 가장 기초적인 이해이자 다니엘서의 환상을 성립시키는 상징임을 밝히신다. 또한 그것은 재림주의의 반역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다니엘서의 "the daily"에 대한 밀러파의 이해를 거절하였고, 그리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강한 미혹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 장은 누가복음 21장과 직접 연결되어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를 특정하며, 이는 9/11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것을 예표한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이방인의 때'와 연결되는데, 이는 모세의 '일곱 때'를 풀어내는 데 있어 주된 열쇠이며, 동시에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 측량과도 일치한다.

23장으로 시작하여 24장과 25장이 뒤따르고, 이어 26장에서 27장으로 마무리되는데, 23장의 알파에 대응하는 오메가가 되는 스물세 개의 이정표를 가진 세 장이 있다. 26장에 27장과 28장을 더하면 '81'이 되며, 이는 제사장직의 상징이다. 세 증인(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11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의 선이다. 23장부터 28장까지는 23으로 시작하여 23으로 끝나는 진리의 선이다.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세 개의 예언적 흐름 가운데 첫 번째이다. 열 장, 그 다음 열두 장, 그 다음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감은 모든 성경의 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서로 만나며 그곳에서 끝난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며,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책들이 마태복음에서 또한 만나고 끝난다고 알려 준다. 유다 지파의 사자의 얼굴을 지닌 마태복음은 서로 구별되는 열두 가지 메시아 예언을 식별하며, 그 열두 본문이 밀러파와 14만 4천의 역사의 이정표들을 이룬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하듯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시하는데, 그 계시는 모세의 생애와 증언, 적그리스도의 역사와 연결되며,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대표되는 승리한 교회의 세 요소를 식별한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열네 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열네 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또 다른 열네 대이다.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족보는 모세와 상응하는데, 모세가 알파요 그리스도가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120년 생애는 노아 시대의 120년 유예 기간과 맞물린다.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은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과 연결된다. 모세의 120년은 세 차례의 40년 기간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40년의 끝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죽였고, 두 번째 40년의 끝에는 장자들과 바로 및 그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 둘째 40년 기간은 가데스에서의 반역으로 끝났고, 셋째 40년 기간은 가데스의 두 번째 반역으로 끝났다. 알파의 세 예언적 선은 모두 가데스에서 끝나며, 마태의 족보의 세 예언적 선은 다윗, 바벨론 포로, 그리고 언약의 사자에서 끝난다.

모세의 알파가 그리스도의 오메가와 정렬될 때, 가데스에 대한 여섯 증인이 드러나는데, 가데스는 1863년이자 일요일 법령을 가리킨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왕을 가데스에 두는데,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14만 4천과 언약을 확증하실 때 배도한 재림주의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지점이다. 다윗을 일요일 법령의 시점에 두면,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이 세워진다. 다윗은 서른 살에 봉사를 시작한 세 명의 인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다윗, 요셉, 에스겔은 모두 서른 살에 사역을 시작했다. 서른 살에 봉사를 시작한 이 네 사람은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변화될 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대표한다. 그 교회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루어진다. 그 변화는 가데스이기도 한 일요일 법령에서 표시되므로, 마태복음의 족보 속 다윗은 서른 살의 다윗과 일치한다.

준비의 30년은 아브라함 언약의 430년, 제사장의 연령, 그리고 다니엘 12:11의 1,290년과 상응한다. 다음 글에서는 마태복음 안에 있는 그 열두 가지 메시아적 예언 각각을 살펴보겠다. 우리는 우선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예언적 흐름을 확인한다. 1장부터 10장, 이어 11장부터 22장, 그리고 23장부터 28장이다.

1844년에 겪은 실망 이후 한동안, 나는 다른 재림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자비의 문이 세상에 영원히 닫혔다고 믿었다. 이러한 입장은 내가 처음 환상을 받기 전에 취한 것이었다. 우리의 오류를 바로잡고 참된 입장을 보게 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이었다.

나는 여전히 닫힌 문 이론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그 용어를 사용했을 때의 의미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반대자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로 믿는 것도 아니다.

노아의 때에는 닫힌 문이 있었다. 그때 홍수의 물에 멸망한 죄악된 인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닫힌 문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그도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창세기 6:3).

아브라함의 때에 닫힌 문이 있었다. 자비가 소돔의 주민들을 위해 간구하기를 그쳤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제외한 모든 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때에는 닫힌 문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세대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셨다.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한 채로 남겨졌다'(마태복음 23:38).

시간의 흐름을 따라 마지막 날들을 내다보면, 그 동일한 무한한 권능이 요한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였다: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3:7).

나는 환상 중에 1844년에 닫힌 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심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보고도 그 빛을 거절한 모든 이들은 어둠 가운데 남겨졌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의 선포에 동행한 성령을 받았으나 그 후에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체험을 미혹이라 단정한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거절한 것이며, 성령은 더 이상 그들에게 호소하지 않았다.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은 그것을 거절한 데 대한 죄책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미칠 수 없었던 이는 오직 하늘에서 온 빛을 멸시한 부류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이 부류에는 그 기별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이후에 자기 믿음을 버린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자칭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연결이 없으므로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 두 부류가 그 환상 속에 나타난다—자신들이 따라왔던 빛을 미혹이라 선언한 자들과, 그 빛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의 악인들. 빛을 보지 못하여 그 거절에 대한 죄가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선택된 기별 1권, 62, 63쪽.

위대한 속죄의 사업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분의 중보의 유익을 받으며, 이 봉사의 일을 드러내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분을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중보의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완전히 어둠 속에 남겨져 그들의 헛된 제사와 헌물을 계속하였다. 모형과 그림자의 봉사는 끝났다.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 문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때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통해 그분을 찾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된 희생 제물이자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중보자로 알지 못했으므로, 그분의 중보의 유익을 받을 수 없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신앙을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의 일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 하는 무관심하고 불신앙적인 자들의 상태를 보여 준다.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소 주위에 모여 가장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낮추어 죄 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 반형적 대속죄일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더 필수적이겠는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보내시는 경고를 아무 처벌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노아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세상에 한 메시지가 보내졌고, 그들의 구원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들이 그 경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인류에게서 그의 영을 거두셨고, 그들은 홍수의 물 속에서 멸망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의 죄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간구하던 자비가 그치었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멸망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세대의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다.' 마태복음 23:38. 마지막 때를 내다보며, 동일한 무한하신 권능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신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10-12. 그들이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을 거두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미혹에 그들을 내버려두신다. 위대한 논쟁, 430, 431.